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여인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었던 육면

원효의 대승사상·여성 즉신성불설 제시

1. 경설에 나타난 여성관

붓다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평등하다고 설했다. 그들은 오직 그 행위에 의해 평가받을 뿐 그의 신분과 권위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붓다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만 평등하다고 하였다. 당시 붓다가 외친 인간 평등사상은 카스트(四姓) 제도의 위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붓다는 우주에 편재하는 궁극적 원리로서의 브라흐만이나 그것이 내면화된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아트만에 의한 전변설, 그리고 어떠한 쌍입과 모인에 의해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원자결합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붓다는 카스트제도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였다. 이것은 그의 가계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그가 아리안족이 아니었기에 기마민족인 아리안족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카스트제를 강력히 부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아리안족인에도 불구하고 카스트제를 부정하였기에 그의 위대함이 더욱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붓다는 여타의 사상가들과 달리 인간의 평등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붓다의 분명한 입장은 불교의 세계관이 되었다. 하지만 붓다의 입멸 뒤 네 차례에 걸쳐 인도에서 경전이 결집되면서 붓다의 본래 입장이 곡해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일부 경전에서는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女人不成佛說] 혹은 ‘여인은 남성을 빌려 성불할 수 있다는 설’ [女人變姓成佛說]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경설은 대승불교 성립 이후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정설로서의 권위를 유지해 왔다. 현존하는 대승 이전의 경전은 대부분 2차 내지 3차 결집을 통해 처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초기 경전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시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불경의 결집기이자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마우리아 왕조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마우리아 왕조가 소멸하고 승가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 주변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바라문교에서 힌두교로 전환되는 승가왕조기에는 바라문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전반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또 불교부파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대승불교가 흥기하던 때였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성립되었던 불교 경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론이 『불설초일명삼매경』, 『묘법연화경』, 『대지도론』 등이다. 이들 경론에서 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평등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담론이 ‘여래삼십이상호설’ [如來三十二相好說]과 ‘여인오장설’ (女人五障說)로부터 비롯된 ‘여인불성불론’ (女人不成佛論)이다. 여래삼십이상호설 가운데에서 특히 ‘음마장’ (陰馬藏)상은 여인들에 대한 부정적이고도 불평등한 인식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인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

여인에게 부과된 다섯 가지 장애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전 성립사에서 보면 반야부와 범화부는 성립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반야부의 대표적 경전인

『대품만아바라밀경』의 부분 주석서인 『대지도론』에서 오장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 여인에게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 전문성왕, 제석천왕, 마왕, 범천왕, 부처님이 될 수 없기에 말하지 않는다.” 이어 『법화경』 『제바달다품』 역시 오장설을 언급하고 있다. “여인의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는 범천왕이 될 수 없고, 둘째는 제석, 셋째는 마왕, 넷째는 전문성왕, 다섯째는 부처님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여인으로서 성불을 빨리 이룰 수 있겠는가?” 여래삼십이상호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남성이 결집된 여인들은 성불할 수 없거나 왕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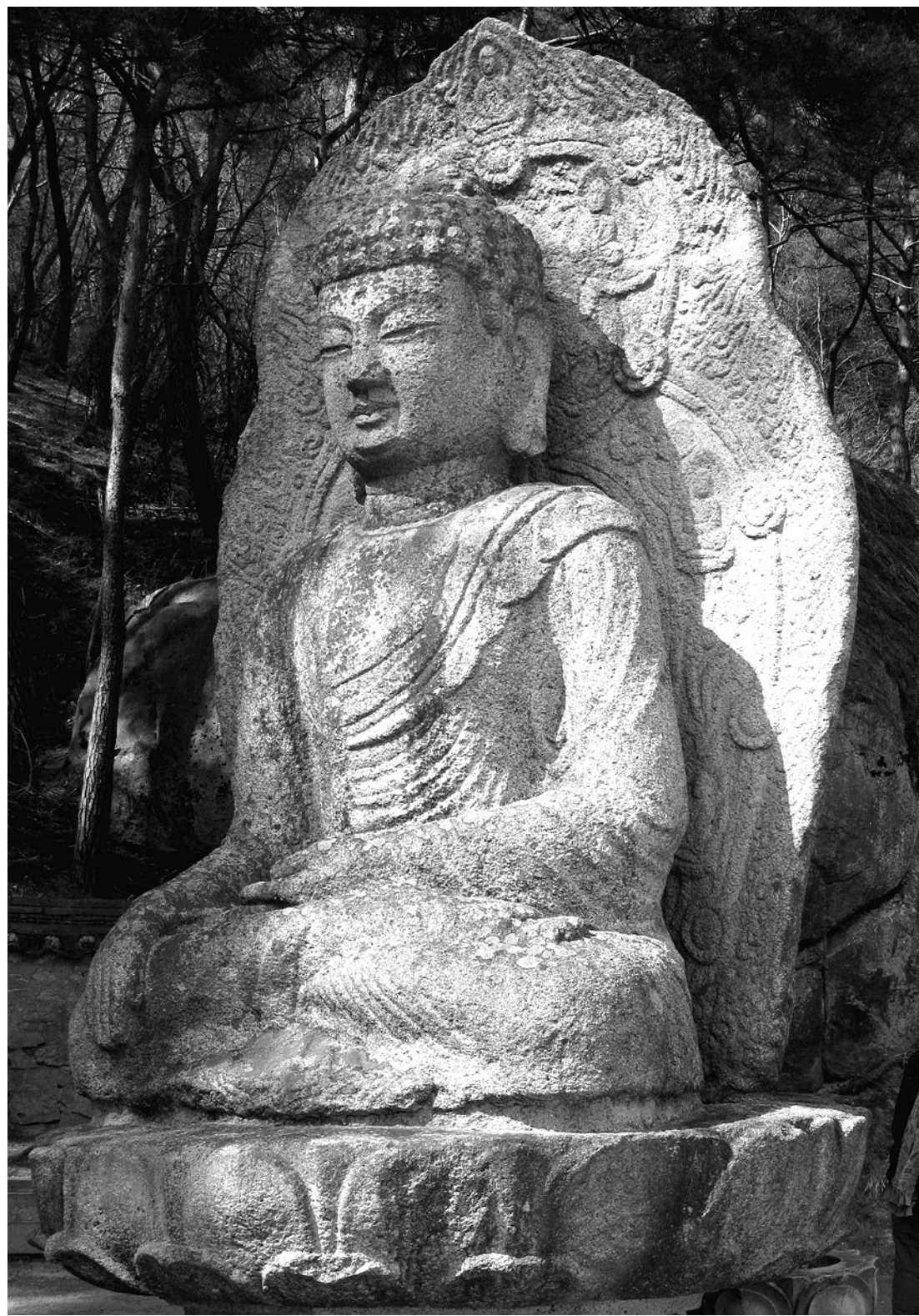
하지만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대승불교 사상이 난숙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존재의 평등성을 선언했던 불교 본래 정신의 회복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활동의 확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중기 대승불교 이래 새롭게 성립되는 경전들에서는 ‘여인의 몸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종래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인이 남성의 몸을 빌려 성불할 수 있다’ [女人變姓成佛論]는 과도기적인 경설로 변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성이 결집된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경설은 여전히 여인들에 대한 당대의 굴절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여성성불 등 평등사상 전개

결집거처며 왜곡, 여인불성불설 대두

그러나 과도기적인 경설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 점차 여성들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이고 불평등적인 시선이 완화되거나 거두어지면서 평등적 시선과 긍정적 시각이 투영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설은 여인불성불설에서 여인변성성불설로 옮겨가는 과정이 수용된 『법화경』의 용녀성불설(龍女成佛說)이다. 이 설은 『무량수경』과 『대아미타경』 등에서도 보이고 있다. 급기야는 일부에서나마 주장되어 왔던 여인즉신성불론이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법화경』 『법사품』에 등장하기에 이른다. “만 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물레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 (전체) 내지 한 구절이라도 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래의 사도요, 여래가 보내어 여래의 일을 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을 설하는 이는 설법사이며, 여래사이며, 여래가 보내어 여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경설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여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여래의 ‘보신’ 내지 ‘화신’이라는 의미까지 이해된다. 나아가 이것은 여인의 몸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인의 몸으로 곧바로 성불한다는 설은 『유마경』과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으로 이어지면서 불교의 여성관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여인의 몸으로 바로 성불하는 전녀와 승만부인의 이야기는 종래의 여인불성불론에서 과도기의 설인 여인변성



경주 남산에 자리한 미륵굴 보리사터 석조여래좌상. 여중 육면이 성불해 육신을 버린곳에 지어진 사찰이 보리사다.

성불론을 거쳐 여인성불론으로 꽃피우게 된다. 이렇게 경설이 변주되면서 성불론으로 정착된 것은 여인들 스스로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통해 이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불교의 여성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변주되면서 붓다의 인간 평등의 사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3. 서방에 왕성한 육면

『삼국유사』 「감통」 편 ‘육면비 염불서승’ 조에는 이같은 ‘여성즉신성불설’이 제시되어 있다. “경덕왕대에 강주(진주)에 남자 신도 수십 명이 극락세계에 뜻을 두어 그 고을 경내에 미타사를 세우고 1만일을 기약하며 계를 모았다. 그때 아간 귀진(貴珍)의 집에 한 육면(郁面)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 뜰에서 스님을 따라 염불을 하였다. 주인이 직분이 아닌 짓을 한다며 미워하여 매일 버 두 섬씩을 나누며 하루 저녁에 다 썰어라 하였다. 육면이 초저녁에 다 썰어 놓고 절에 가서 밤낮으로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뜰의 좌우에 말뚝을 세우고 새끼줄로 두 손바닥을 꿰어 켜 다음 말뚝에 잡아매고 합장한 손을 좌우로 늘리면서 스스로 격려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침 소리가 났다. ‘육면량은 불당에 들어가 염불하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권하여 법당에 들어와서 법례에 따라 정진하게 되었다. 얼마 뒤 서쪽 하늘에서 음악이 들려오자 육면의 몸이 솟아올라 지붕을 뚫고 나갔다. 서쪽으로 가다가 교외에 이르러 육신을 버리고 진신(眞身)으로 변하니,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발하며 천천히 가는데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불당에는 지금도 육면이 뚫고 나간 자리가 있다.” 이 이야기는 경덕왕대 새로운 미타 염불결사의 본보기가 된 금강산 건봉사 의발징(發徵, 八珍)의 결사와 연결되고 있다.

『승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현신인 동량팔징(棟梁八珍)이 천 명의 무리를 모아 그들을 두 파로 갈랐다. 한 파는 ‘일을 하게 하고’ [勞力] 한 파는 ‘정성껏 도를 닦게 했다’ [精修]. 힘 써 일하는 파의 우두머리가 계행을 얻지 못하고 축생도(畜生道)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그 소가 경을 읽고 갖기 때문에 불경의 범력을 입어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여 아간 귀진의 집 여중으로 태어나 이름이 육면(郁面)이다. 육면이 일이 있어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을 꾸고 감음을 받아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아간의 집에서 혜승 법사가 창건한 미타사까지 거리는 멀지 않았다. 아간이 늘 그 절에 가서 염불하므로 육면도 따라가 뜰에서 염불하였다.

이렇게 하기 9년 을미년(755) 정월 21일에 육면이 예불하다가 지붕을 뚫고 나가 소백산에 이르러 신선한 짝을 떨어뜨렸으므로 그곳에 보리사(菩提寺)를 지었다. 육면이 산 아래 이르러서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두 번째 보리사를 짓고, 그 불당에 육면 등천지전(郁面登天之殿)이라는 방(榜)을 써 붙였다. 그 때 뚫린 지붕의 구멍이 열 아홉이나 되는데 폭우나 폭설이 내려도 새지 않았다. 훗날 일을 좋아하는

육면, 염불로 여인과 종의 신분 뛰어넘어

육면설화는 여인왕생 사상의 보급 알려

이가 금담 한 좌를 만들어 바로 그 구멍을 막고 그 위에 신기한 일을 기록하였다. 그 방과 탑은 아직도 있으며, 육면이 간 뒤에 귀진은 그의 집을 이인(異人)이 난 집이라 회사하여 절을 짓고 범왕사(法王寺)라 하였으며 밭과 소작인을 바쳤다. 그러나 오랜 뒤에 폐허가 되어 대사 회경(懷鏡)이 승선 유석(劉碩), 소경 이원장(李元長)과 같이 발원하여 중건하였다. 이 기록은 발징(팔징)과 육면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들 미타결사는 경덕왕대와 애장왕대의 설화이지만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 주제는 여인도 왕생할 수 있다는 원효류의 대승불교 사상이 알기 쉬운 설화 형태로 신라 대중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능력보다는 신분이 우선이었던 신라 중대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성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김영태, 『삼국유사 소전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 신종현, 『삼국유사 깊이 읽기』(2) (일지사, 2008).
- 고영성,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똥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똥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똥(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이메일: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강, 오주베개등 자매품다양)